

〈환 자 수 기〉

주님께서 주신 이 광명

여 환 속 (말가리다)

〈가톨릭맹인선교회 도서관근무〉

저는 얼마전까지도 앞을 못보는 맹인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 왔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고통과 절망속에서 벗어나 이제 광명을 찾아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보람과 만족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가톨릭맹인선교회 녹음도서관 복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고, 퇴근길 아름다운 네온불빛의 거리를 지나 하숙집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이 기쁨! 삶의 보람!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오로지 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고통의 나날들, 그러나 그 고통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통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저의 15년간의 고통이 오늘의 이 영광과 기쁨과 큰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런 쓰라린 과거가 없었다면 아픔이 무엇인지 맹인의 고통과 서러움이 어떤 것이며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를 것이며 또한 건강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저는 생후 한달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오던 중 불행히도 홍역기침이란 병을 얻어 병세가 악화되어 사경을 헤메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좋다는 약을 다 먹고 치료를 하던 중 한약을 잘못 복용한

것이 불행의 씨가 되었습니다. 40℃의 고열이 내리면서 시력을 상실하여 앞 못보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저의 치료는 중단되지 않고 여러 안과병원을 찾았으나 현대의학으로서는 시력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질 때마다 저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좌절속에서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죽음의 자유마저 없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으며 깊은 구렁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방황했고 빈번하며 괴로워 했습니다.

실명후 저는 냉담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느님께서는 수녀님과 레지오단원들을 통해서 불러 주셨습니다. 수녀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저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양심껏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죄가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하고 주위의 모든 분들이 위선자처럼 보였고 동정어린 그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분들은 여전히 방문해 주셨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행위의 원동력이 곧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쏟은 사랑과 위로가 저의 일그러진 마음을 모아 한곳에 자리를 하면서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되었고 하느님 앞으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즐거움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오던 저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리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당신의 은총안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집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자립의 길도 열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저곳 문의하고 방송을 듣고 노력하여 80년 3월 배움이란 꿈과 희망을 안고 자립의 길을 찾아 서울맹학교 중3 과정에 편입하였습니다. 29

세의 나이에 중학생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교복차림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보다 몇 갑절의 고통과 시련을 요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학교생활이 익숙하지 못해 보행이 불편하며 접자가 느려서 받는 고통, 나이가 많아도 하급생이라 상급생으로부터 받는 치욕적인 모독과 언어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지 않으려고 하얗게 밤을 새우며 점자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참고 견디면서 점자공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린 동생같은 급우들과 같이 생활해야만 했던 그때의 수모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지만 연륜이 곧 도량으로 성가시는 급우들을 웃음과 아량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급우가 강남성모병원에서의 각막이식수술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을 전해주면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지쳐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실망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찾은 마음의 평화를 깨고 싶지도 않았나. 속는 셈치고 한번만 더 가보라는 간절한 청에 기대도 하지 않고 병원에 간 결과 뜻밖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인공각막이식수술을 하면 50%의 성공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쁨보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가정형편으로는 그 많은 수술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어린 기도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수술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껏 참아온 이 불쌍한 말거리다에게 절망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1년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선 가난한 저에게 풍요로움을 채워 주셨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 영세민 실명자들에게 약품대 및 입원비, 수술비등 일체를 무료로 개안 수술하여 빛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200주년 개안수술혜택을 달라고.....

그렇게 갈망했던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6월 3일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강남성모병원에 입

원하였습니다. 꼭 성공하리라는 것을,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서, 박사님께선 제눈을 보시고 60%의 성공율은 있으나 워낙 실명된지 오래되었고, 너무 심하다고 하시며 실패해도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60%안에 들겠다고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혹 실패하면 주위의 분들이 받을 타격에 불안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인공각막비 백만원을 마련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십만원 가정부 월급으로 마련하기는 일년간의 피땀어린 노동의 댓가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주님! 저를 보시지 말고 불쌍한 우리언니 정성을 보시어 꼭 성공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물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저의 수술이 성공하기를 기구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은 시작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빨리 나타나지 않고 저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광명의 영광을 주신다면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위하여 몸바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환자의 기도”를 반복하면서 주여!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시며 저를 도와주신 어머니와 언니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평화로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 이게 웬일입니까? 꿈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분명히 회진오신 선생님의 손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6월 17일 저의 인생은 광명의 빛으로 전환되었으며 15년간의 고통과 절망속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에 벅찬 저의 마음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병원성당에 나가 미사드리는 신부님 모습과 성체가 뚜렷이 보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둠에서 빛을 찾은 이 기쁨, 이 환희, 어찌 이 한장의 종이위에 다 표현할 수가 있으며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음

니까?

시력이 거의 완전하게 회복된 7월 2일 기쁜 가슴을 안고 퇴원하였습니다. 밝은 빛, 아름다운 자연, 저의 눈으로 보며 오가는 차량의 행렬과 거리의 간판글씨 한자 한자를 읽으면서……. 영원히 감사드려야 할 주님의 은혜 2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혜택을 주신 병원당국과 수술해 주신 김재호박사님 이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성실한 삶 뿐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려진 불우한 맹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이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몸 바칠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오로지 기도의 결과임을 알고 안과병동에 계신 환우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더러는 늦게 성취되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하느님께 매달리시기를 권고합니다.

15년만에 세상을 보는 서울의 거리와 단풍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모든 은인들과 형제들에게 비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가톨릭 맹인선교회 녹음도서관 복사실에서 맹인을 돕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